

당원 · 지지자, 온라인 학부모카페 게시용 메시지(案)

2015.10.18., 전략기획국

"올바른 교과서 = 국정교과서 ??" 거짓말에 기가 잡니다...

요즘 뉴스를 보고 있자니 점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요.
무슨 소리이고 하니, 애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 가지고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
때입니다.

길거리를 지나다보면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란 새
누리당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네요.

화들짝 놀랐습니다.

'주체사상' 이면 가끔 뉴스에서 하던 종북, 간첩 이런 사람들이 외치던거 아닌가
요?

혹시나 애들이 정말 이런걸 배우면 큰일이자나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로 천명되면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 및 북한 주
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금성출판사 407p-

"김일성은 이를 바탕으로 1967년 '주체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확립하였으며,

이는 김일성의 권력 독점과 우상화에 이용되었다" -천재교육 318p-

애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주체사상'이 나오긴 하더군요.
그런데 '주체사상'이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이고,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이라며 분명하게 비판하고 있네요;;;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새누리당의 말과 다르게 현재 역사교과서들은 주체사상이 나쁘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왠지 속은 느낌이 드네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새누리당과 정부가 하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면 더 '다양해' 질 거랍니다.
물론 8종류에서 1종류가 되지만 말입니다.

또 국가에서 만들면 더 질 좋은 교과서가 될 거라고도 합니다.
2~3년 걸리던 것을 10개월만에 만들어야한다는 말은 쪽 빠고 말입니다.

게다가 국정화가 되면 아이들 시험부담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교과서가 1종류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시험이 더 어렵게 출제될 거란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 주장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의 역사교과서가 심각한 '편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수천 명의 역사학자와 교사들이 집필을 거부하고, 국정 교과서를 만드는데 찬성한다는 일부 학자들, 대부분 뉴라이트 계열이거나 일제 강점기가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을 줬다는 식민사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인 것을 보면 어떤 교과서가 될지 상상이 됩니다.

아마도 정부는

"식민지배도 경제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친일을 미화하는 교학사 역사교과서와 같은 '국정교과서'가

바로 "올바른 교과서" 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수백 개의 오류가 발견되어, 전국에서 단 한곳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가 '올바른 교과서'이고,

나머지 7개 교과서가 '좌편향'되어 있다고 말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보며,

또, 역사학자 90%가 편향되었고 10%가 옳바르다는 여당 대표를 보며,

대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생각을 심어주려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살리기는 외면한 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만 올인하는 모습을 보며

일본의 역사왜곡이 떠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시도 때도 없이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일본에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겪었던

참혹한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사죄하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인식하지 못하는 지도자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 아베총리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양한 교과서들을 없애고, 단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그것도 사실왜곡과 친일·독재 미화로 가득한 역사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가 일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배가 경제발전을 시켜줬다는 교과서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일본에게 전쟁범죄를 사과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거 일본의 만행에 피눈물을 흘리신 우리 할머니·할아버지 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절대 안됩니다.'

또 새누리당과 정부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역사를 속이려는 당신들이 저는 부끄럽습니다!' 라고요.